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2010년 6월 pp.103~132
한국세무학회

감사인 교체와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관한 연구*

박종성** · 김성환*** · 조은혜****

<요 약>

본 연구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으로서의 교체를 시도하는지, 그리고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보다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 감사보수 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지를 분석한다. 또한 감사수입에 대한 의존도 및 비감사서비스 제공여부가 초도 감사 보수할인에 영향을 주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들의 재무상황이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들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재무제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재무상황이 불량한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도감사 보수할인과 관련된 분석에서는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 감사보수 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품질 감사인에서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 표본의 50%이상이 감사보수를 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의 총 수입 중 회계감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비감사서비스 제공여부와 초도감사 보수할인 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감사인 교체, 초도감사, 감사보수 할인, 감사품질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09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jongsung@sookmyung.ac.kr, 02-710-9215, 주저자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sunh@yonsei.ac.kr, 02-2123-4446,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경상대학 석사과정, naktalover@naver.com, 02-710-9215, 공동저자

I. 서 론

회계감사 시장은 품질 측면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즉, 고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있는 반면 저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고품질 감사인은 품질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저품질 감사인보다 더 높은 감사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Francis and Wilson(1998)은 대리인비용의 크기가 감사품질 선호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대리인비용이 큰 기업일수록 높은 감사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문중(1997)의 연구는 대리인비용의 크기와 감사품질 선호 간에는 관련이 없음을 보인다. 대신 박종성·최기호(2001)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무적 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은 고품질 감사인을 선호하는 반면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은 저품질 감사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을 선호하는 것은 감사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이익조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재무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경영자의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장휘용 1997, 최 관·백원선 1998, 박종성 1999 등) 등을 고려할 때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를 시도하는 것은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감사계약은 기업과 감사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감사인 또한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히 최근 들어 감사인에 대한 소송위험이 높아지면서 감사인들도 고객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감사인들은 고객의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하여 수용가능한 위험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사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음으로서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런데 고객의 선별을 통한 이러한 위험감소 노력은 감사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형회계법인과 같이 고객 수도 많고 감사서비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도 낮은 경우에는 고위험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겠지만 중소형 회계법인 특히 감사서비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감사인의 경우에는 고위험 고객과의 감사계약 체결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보수를 할인해주면서까지 감사계약체결을 원하는 감사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감사보수도 인하하고 재무제표 왜곡가능성도 높이기 위해 저품질 감사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역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회계감사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인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

적으로 한다(회계감사기준 제3조). 즉 회계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회계감사가 그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출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즉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고품질의 감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재무제표 왜곡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을 선택하고, 저품질 감사인들은 수익 증대를 위해 감사보수를 할인하면서까지 그러한 기업들과 감사계약을 체결한다면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DeAngelo(1981)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매몰원가이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인 외(2007)는 보수할인이 이루어질 경우 감사시간의 투입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초도감사보수의 할인이 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감사보수 하락을 부추길 경우 감사시장 전반에 걸친 감사품질의 하락을 초래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회계감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으로의 교체를 시도하는지 그리고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보다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 감사보수 할인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더 높은 지를 분석한다. 또한 감사수입에 대한 의존도 및 비감사서비스 제공여부가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영향을 주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만일 전체 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감사인에게서 초도감사보수의 할인이 더 확연히 나타난다면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의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감사서비스와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감사서비스가 비감사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와 관련되어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이루어지는 감사인 및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초도감사 보수 할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했던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서, 감사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감사인에게서 그리고 비감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감사인에게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국내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역선택과 과도한 가격 경쟁의 문제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규제기관의 정책 설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감사인 교체 및 초도감사 보수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IV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표본에 대해 기술하며, V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마지막 VI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문헌연구

1.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감사인 교체 동기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와 감사인 교체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감사인 교체 동기를 분석한 연구들은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¹⁾ 왜 감사인을 교체하는 지 그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었다. 반면 감사인 교체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기업이 감사인 교체 후 의견구매에 성공하는 지 또는 이익조정 행위가 증가하는 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감사인 교체 시 보수할인이 이루어지는 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교체효과보다는 교체동기를 분석하는 연구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감사인 교체동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감사인의 교체 동기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변수로는 대리인 비용, 의견구매, 감사인의 보수적 경향, 피감사기업의 재무상황 등이 있다. 회계감사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리인 비용이 큰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선호할 수 있다. Francis and Wilson(1998), DeFond(1992)은 미국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DeFond(1992)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리인 비용의 변화가 감사인 교체를 유발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국내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문종 1997)에 따르면 대리인 비용에 따른 감사인 교체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피감사회사가 감사인 교체를 통해 의견구매를 시도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Chow and Rice(1982)는 기업들이 한정 의견을 받았을 때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였다. Smith(1986)는 감사인 교체 전·후의 감사의견 비교를 통해 의견구매 가능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한정 의견을 받은 후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 139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교체 직후 의견구매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기업은 5개뿐이라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감사인 교체를 통해 의견구매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국내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한 이효익(1990)의 연구는 의견구매 목적으로 감사인을 교체하였을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음을 부분적으로 입증하였다.

Kirshnan(1994), DeFond and Subramanyam(1998)은 전임 감사인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경우 기업들이 감사인을 교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임 감사인이 회계나 감사관련 문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피감사기업은 이에 불만을 갖고 감사인을 교체한다는 것이다. 특히 DeFond and Subramanyam(1998)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들이 교체 직전 연도에 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의 재량적발생액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전임 감사인이 지나치게 보수

1) DeAngelo(1981)에 따르면 기업이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Transaction Cost가 발생된다.

적인 회계방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Schwartz and Menon(1985)은 감사인 교체원인으로 피감사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를 들고 있다. 이들은 파산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비교하여 파산한 기업에서 감사인 교체가 더 빈번하고 파산에 임박할수록 교체비용이 더 높아지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건전기업에 비해 감사인을 교체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종성·최기호(2001)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감사인 교체방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재무건전성이 좋은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품질의 감사인으로 교체할 것이며,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업은 재무제표 왜곡 동기가 강해져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도 이들의 예측과 동일하게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감사인 교체 방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초도감사 보수할인과 관련된 선행연구

DeAngelo(1981)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감사인 입장에서는 개시원가(Start-up Costs)가 발생되며 피감사회사 입장에서는 교체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된다. 이로 인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에는 일종의 쌍방독점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쌍방독점 관계 하에서 양당사자는 기존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동기를 갖는데, 그 이유는 관계가 단절될 경우 양쪽 모두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거래관계가 종료될 경우 감사인은 피감사회사로부터 미래에 얻게 될 준지대(Quasi-rent)를 잃게 되고, 피감사회사는 감사인 교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 하에서 계속감사인은 감사원가(기회비용 포함)보다 더 높게 감사보수를 책정하는데, 이것이 곧 준지대이다. 즉, 준지대란 감사원가를 초과한 감사수임료를 말한다.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바로 이러한 미래 준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감사인간의 경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DeAngelo(1981)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매몰원가로서 감사인의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시원가(Start-up Costs)와 교체비용(Transaction Costs)이 중요한 감사인은 초도감사 시 보수 할인여부에 관계없이 미래 감사에서 준지대를 얻기 위해 감사원가보다 감사수임료를 높여 책정할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Dye(1991)는 DeAngelo(1981) 모델에서의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개시원가와 교체비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감사보수 결정과 관련된 모든 협상력을 감사인이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감사보수 결정과정에서 피감사회사가 모든 협상력을 갖고 있다면 감사인이 감사원가 이상으로 감사보수를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준지대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초도감사 보수할인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Dye(1991)는 감사보수의 공시여부가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로부터 준지대를 받지 않을 때 가장 독립적이라고 인식한다. 그런데 감사인이 준지대를 얻고 있는 지 여부는 감사보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때 알 수 있다. 감사보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지대는 발생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이 준지대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보수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피감사회사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감사보고서를 얻기 위해 준지대를 지불하고자 하며, 이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으로 이어지고 결국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Dye(1981)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보수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나타나지만 감사보수 정보가 공시되는 시장에서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발견된 연구결과(Francis and Simon 1987 ; Gregory and Collier 1996 ; Walker and Casterella 2000 ; Sankaraguruswamy and Whisenant 2003)도 있는 반면, 감사보수할인 현상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결과(Simunic 1980 ; Francis 1984 ; Palmrose 1986)도 있다. 그리고 Dye(1991)의 주장대로 감사보수가 공시되지 않은 시장에서만 보수할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다.

국내의 경우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주인기·최 관(1997)은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보수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보수의 결정변수를 분석하였는데, 초도감사에 대한 할인이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노준화 외(2004)는 감사인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을 연구하였다. 실증결과 국내에서도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감사인유지제도 하에서의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연도별 감사계약제도 하에서의 초도감사 보수할인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감사인 유지제도 하에서는 3년 연속감사를 함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준지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신용인 외(2007)는 초도감사 보수할인기업의 감사품질이 초도감사 보수비할인기업에 비해 더욱 낮게 나타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책 당국의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박재환 외(2008)는 국내에서도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일반교체기업에 비해 강제교체기업의 감사보수할인이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III. 가설 도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품질 감사인으로부터의 감사는 상대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더 많이 향상

시켜 정보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²⁾을 유도한다(DeAngelo 1981 ; 김경태 2006 등). 반면 저품질 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조정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감사보수도 낮아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업은 어떤 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품질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변수 중의 하나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다. 재무상황이 좋은 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자본비용을 절감하고(DeAngelo 1981 ; 김경태 2006),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시장에 알리기 위해(Titman and Trueman 1986 ; 정문중 1997)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자본비용 절감보다는 감사보수의 절감이나 이익조정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비용의 절감은 투자자들의 반응을 통해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이지만 감사보수 절감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조정을 통한 효과가 자본비용 절감효과보다도 클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저품질 감사인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박종성·최기호(2001)의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연구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재검증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품질이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설 1 :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 비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고품질 감사인과 저품질 감사인 간에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차이를 보이는 지 검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Big 4가 고품질 감사인으로 분류되는데, Big 4의 경우에는 고객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비감사서비스를 통한 수입의 비중도 높으므로 보수를 할인하면서까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반면에 저품질 감사인으로 분류되는 Non-Big 4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따라서 보수할인을 통해서라도 고객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를 시도하면서 보수할인을 요구하고, 감사인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피감사회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저품질 감사인들에게서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2 :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 비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서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2) 예를 들면 고품질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이익반응계수(ERC)가 높아지고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감사계약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의 자율적 계약이다. 피감사회사가 아무리 감사보수를 인 하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감사인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할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감사인과 피감사회사 간의 협상에 의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을 분석할 경우 피감사회사의 특성뿐만 아니라 감사인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감사인 특성 변수로 감사품질 외에 감사수입 의존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감사인의 전체수입 중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고객의 중요성은 커진다. 따라서 그러한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보수할인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고객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의 성격을 갖는다.

가설 3 : 감사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감사계약 체결 시 감사인에게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요청하며 감사보수 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감사인은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체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비감사서비스와 동시에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면 감사서비스가 비감사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IV. 연구방법론 및 표본

1. 변수의 측정

가. 기업 재무건전성의 측정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파산예측모형에 의해 계산된 Z -값³⁾ 또는 파산확률을 사용한다. 우선 선행연구(Altman 1968 ; Ohlson 1980 ; Zmijewski 1984)의 파산예측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파산예측과 관련된 변수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9년 8월까지 파산한 기업 438개와 이에 대응되는 건전기업 1,308개를 이용해 파산예측모형을 개발하

3)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경우 Z Score 대신 K Scor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종권 · 박종원 2005). 국내 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K Score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 사용한 Z Score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였다⁴⁾. 이때 대응되는 건전기업은 동일연도, 동일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 중에서 자산규모가 유사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로짓분석을 통해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현금흐름비율, 손실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산예측모형 구성을 위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현금흐름비율, 손실여부의 계수 값이 각각 1%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of-fit) 측정치를 나타내는 Log Likelihood값에 대한 χ^2 통계량도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나 네 변수를 이용한 파산예측모형의 구성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1>의 로짓분석 결과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파산예측모형을 구성하였다. 표본기업의 재무비율을 예측모형에 대입하면 ZSCORE가 계산되며, 이 값이 클수록 파산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ZSCORE = -2.5288 + 0.9124*FINL - 1.1291*ROA - 1.5834*CF + 0.9816*LOSS$$

<표 1> 파산예측모형(N=1,746)

$$Bankrupt = b_0 + b_1*FINL + b_2*ROA + b_3*CF + b_4*LOSS + u$$

Variable	계 수	Wald χ^2
Intercept	-2.5288	294.0052***
FINL	0.9124	20.0932***
ROA	-1.1291	23.5098***
CF	-1.5834	36.3532***
LOSS	0.9816	41.2616***
Likelihood ratio	540.4979***	

주 1) Bankrupt : 파산기업의 경우 1, 아니면 0, FINL : 부채비율(부채총액/자산총액),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 CF : 현금흐름비율(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매출액), LOSS : 손실여부 더미변수(당기순손실이면 1, 아니면 0)

2) *** 1% 유의수준

나. 감사품질의 측정

감사인의 감사품질은 감사인 규모, 감사시간, 감사보수 등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Big 4에 속하는 감사인이 다른 감사인에 비해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

4) 건전기업의 표본수를 파산기업의 3배로 한 것은 동일업종에서 파산기업표본에 대응하여 선택될 수 있는 건전기업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다수의 부설예측연구들(Zmijewski 1984 ; 이계원 1993 ; 장휘용 1997)도 3배수의 대응표본을 선정하였다.

된다. Big 4와 같은 대형 감사인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피감사기업의 부당한 회계 처리를 묵과하여 고객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효익보다 감사품질 하락으로 인해 잠재적 고객을 잃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DeAngelo 1981). 따라서 대형 감사인은 개별 피감사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증가하여 고품질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Big4 감사인과 non-Big4 감사인 간에 감사품질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Teoh and Wong 1993 ; Becker et al. 1998 ; Francis et al. 1999 ; Palmrose 1989).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국과 같이 대형 감사인과 기타 감사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품질 감사인과 저품질 감사인의 구분이 쉽지 않다. 정문종(1997), 박종성·최기호(2001), 심한택(2001) 등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의 Big 4와 제휴하고 있는 감사인을 유명감사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Big 4와의 업무 제휴 여부에 따라서 고품질 감사인과 저품질 감사인으로 구분하였다. 즉 Big 4와 제휴하는 감사인을 고품질 감사인으로, 기타 감사인을 저품질 감사인으로 분류한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AQUALITY = a_0 + b_1 * ZSCORE + b_2 * SIZE + b_3 * ISSUE + b_4 * GROWTH + b_5 * MKT + \sum b_i * YEAR_i + u \quad (1)$$

여기서 AQUALITY : 고품질 감사인으로의 교체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Big 4로 교체되면 1, 아니면 0)

ZSCORE : 파산예측모형에 의해 계산된 값

SIZE : log(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

ISSUE : 유상증자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교체 후 3년 내에 자본금이 10%이상 증가 했으면 1, 아니면 0)

GROWTH : 총자산증가율((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교체 전전 연도 총자산)/교체 전전 연도 총자산)

MKT : 시장구분 더미변수(유가증권시장이면 1, 아니면 0)

YEAR : 연도 더미변수

식 (1)에서 관심변수는 ZSCORE로, 이 값이 클수록 재무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은 저품질 감사인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ZSCORE는 음(-)의 계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SIZE와 GROWTH는 기업규모와 성장성이 감사인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Francis and Wilson 1988)에 따라 모형에 추가되었으며, 유상증자 시 주식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Francis and Wilson 1988)에

따라 ISSUE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한편 연도 더미변수와 시장 구분 더미변수를 추가해 연도별 차이와 시장별 차이를 통제하였다.

감사품질 선호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교체 이전의 재무적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이므로 ZSCORE, SIZE 및 GROWTH는 감사인 교체 직전연도의 값으로 측정한다. 반면에 ISSUE는 감사인 교체 후 3년 내에 자본금이 10% 이상 증가하였으면 1, 아니면 0으로 측정하는데, 그 이유는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3년 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 비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서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DISCOUNT = & a_0 + b_1 * AQUALITY + b_2 * d_SIZE + b_3 * d_INVREC + b_4 * d_LEV \\ & + b_5 * d_ROA + b_6 * MKT + \sum b_i * YEAR_i + u \end{aligned} \quad (2)$$

여기서 DISCOUNT : 감사보수가 할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AQUALITY : 고품질 감사인으로의 교체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Big 4로 교체되면 1, 아니면 0)

d_SIZE : $\log(\text{교체 연도 총자산}) - \log(\text{교체 직전연도 총자산})$

d_INVREC : 교체 연도의 INVREC((재고자산 + 매출채권)/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INVREC

d_LEV : 교체 연도 LEV(총부채/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LEV

d_ROA : 교체 연도 ROA(당기순이익/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ROA

MKT : 시장구분 더미변수(유가증권시장이면 1, 아니면 0)

YEAR : 연도 더미변수

DISCOUNT는 감사보수의 할인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교체 이전과 비교하여 교체 이후에 감사보수가 낮아졌으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식 (2)에서 실험변수는 AQUALITY이며, 저품질 감사인으로의 교체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AQUALITY의 예측부호는 음(-)이다. 기업규모의 변화(d_SIZE),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변화(d_INVREC), 부채비율의 변화(d_LEV), 총자산이익률의 변화(d_ROA)는 통제변수로서 모형에 추가되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감사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d_SIZE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으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감사투입시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감사보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d_INVREC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부채비율, 총자산자산이익률 등은 감사위험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감사위험의 변화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d_LEV와 d_ROA를 모형에 추가하였다. 한편 연도 더미변수와 시장 구분 더미변수를 추가해 연도별 차이와 시장별 차이

를 통제하였다.

가설 3은 전체수입에서 감사수입의 비중이 큰 감사인의 경우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더 많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서 식(2)에 AFR를 추가한다. AFR는 감사인의 전체 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된다. 감사수입 의존도가 클 때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AFR의 예측부호는 양(+)이다.

가설 4는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때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NAS를 실험변수로 식 (2)에 추가한다. NAS는 감사서비스와 함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서, NAS의 예측부호는 양(+)이다.

3. 표본 선정

기업의 감사품질에 대한 선호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감사인 교체시점이다. 현재 감사인 선임제도는 자유수입제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기업은 감사인 교체 시점에서 감사품질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감사인을 교체한 상장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금융업의 경우 재무제표의 양식이나 계정과목의 성격 등이 상이해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기업들과 비교 및 분석하기 곤란하므로 분석대상 표본에서 제외한다. 감사인 지정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교체는 피감사기업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 이전 3년, 이후 3년 동안 동일감사인이 유지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현재 주권상장기업은 외감법 제4조의2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감사인을 교체한 후 3년 동안은 감사인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감사인 교체 후 3년 이내에 감사인이 다시 교체되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예외 상황의 기업들을 연구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교체 전후 3년 동안 동일감사인이 유지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총 356개의 표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2>는 표본기업의 교체방향별 분포를 보여준다. 고품질 감사인에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표본이 163개로 가장 많으며, 저품질 감사인에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표본은 43개이다. 교체방향에 따른 집단별로 수입료 인하표본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향교체 표본에서 5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향교체 표본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표본기업의 분포 (2003년~2006년)

교체 방향	수임료 인상 또는 불변	수임료 인하(비율)*	합 계
상향교체(저품질 감사인 → 고품질 감사인)	33	10(23.3%)	43
하향교체(고품질 감사인 → 저품질 감사인)	36	39(52.0%)	75
수평교체(고품질 감사인 → 고품질 감사인)	123	40(24.5%)	163
수평교체(저품질 감사인 → 저품질 감사인)	52	23(30.7%)	75
합 계	244	112(31.5%)	356

* 표본기업 중 수임료를 인하한 표본이 차지하는 비율임.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자료를 이용했고, 재무제표 자료는 상장회사협의회 TS2000으로부터 추출했다. 그리고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비감사보수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했다. 또한 감사인의 총수입 및 감사수입 정보는 금융감독원에 공시되는 회계법인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V. 실증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표 3〉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감사인 교체표본의 31.46%가 초도감사 시 감사보수를 할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함을 보인다. 표본 중 57.87%는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었으며, 감사보수가 감사인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21%이다. 표본의 20.79%는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N=356)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중위수	최소값
DISCOUNT	0.3146	0.4650	1.0000	0.0000	0.0000
AQUALITY	0.5787	0.4948	1.0000	1.0000	0.0000
SIZE	11.3654	1.4516	16.2418	11.0579	8.7562
ISSUE	0.3876	0.4879	1.0000	0.0000	0.0000
GROWTH	0.0909	0.3311	1.7760	0.0504	-0.6164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N=356) (계속)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중위수	최소값
d_SIZE	0.1146	0.2358	1.0559	0.0776	-0.4406
d_INVREC	-0.0035	0.0796	0.1974	0.0033	-0.3390
d_LEV	-0.0079	0.1084	0.3557	-0.0035	-0.3924
d_ROA	0.0171	0.1658	0.8188	-0.0019	-0.5584
AFR	0.4821	0.1180	0.7601	0.5253	0.2193
NAS	0.2079	0.4064	1.0000	0.0000	0.0000
ZSCORE	-1.9042	0.8664	1.4385	-2.2083	-3.0229

- 주 1) DISCOUNT : 감사보수가 할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AQUALITY : 고품질 감사인으로의 교체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Big 4로 교체되면 1, 아니면 0), SIZE : $\log(\text{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 ISSUE : 유상증자 여부, 교체 이후 3년 내에 자본금이 10% 이상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GROWTH : 총자산증가율($(\text{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 - \text{교체 전연도 총자산}) / \text{교체 전연도 총자산}$), d_SIZE : $\log(\text{교체 연도 총자산}) - \log(\text{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 d_INVREC : 교체 연도의 INVREC($(\text{재고자산} + \text{매출채권}) / \text{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INVREC, d_LEV : 교체 연도 LEV($\text{총부채} / \text{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LEV, d_ROA : 교체 연도 ROA($\text{당기순이익} / \text{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ROA, AFR : 총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NAS : 감사서비스와 동시에 비감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1, 아니면 0, ZSCORE : 파산 예측모형을 통해 도출된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재무상황지표
- 2) 분석에서 사용된 메트릭 척도인 변수들은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위, 하위 1% 값을 극단치로 간주하고 이를 조정(Winsorize)

<표 4>는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감사보수할인(DISCOUNT)의 경우 감사수입 비중(AFR)과는 양의 관계를, 감사품질(AQUALITY)과는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수입 비중이 클수록 초도감사 보수할인의 가능성이 커지며,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할수록 보수할인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예측과 동일하다.

감사품질(AQUALITY)의 경우 재무상황지표(ZSCORE)와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일수록 저품질 감사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의 예측과 동일하다. 반면 감사보수할인(DISCOUNT)과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제공 여부(NAS)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변량 분석 결과이므로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다.

〈표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N=356)

Variables	DISCOUNT	AQUALITY	SIZE	ISSUE	d_SIZE	d_INVREC	d_LEV	d_ROA	AFR	NAS	ZSCORE
DISCOUNT	1.0000	-0.1814***	-0.0395	-0.0176	0.0580	0.0751	0.0171	0.0256	0.0961*	-0.0340	0.0268
AQUALITY		1.0000	0.3263***	-0.1734**	-0.1184**	0.1229**	0.0988*	-0.1104**	0.0666	0.1007*	-0.2416***
SIZE			1.0000	-0.4558***	-0.2018***	0.1056**	0.0365	-0.1831***	0.0197	0.2163***	-0.3347***
ISSUE				1.0000	0.2463***	-0.1251**	-0.1204**	0.0831	0.0284	-0.0666	0.2403***
d_SIZE					1.0000	-0.0916*	-0.0210	0.3093***	-0.0340	0.1753***	0.0268
d_INVREC						1.0000	0.1335**	0.0927*	-0.0518	-0.0012	-0.0131
d_LEV							1.0000	-0.2820***	-0.1203**	-0.0066	-0.1629***
d_ROA								1.0000	-0.0252	0.0720	0.5310***
AFR									1.0000	-0.1061**	0.0346
NAS										1.0000	-0.0033
ZSCORE											1.0000

주 1) DISCOUNT : 감사보수가 할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AQUALITY : 고품질 감사인으로의 교체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Big 4로 교체되면 1, 아니면 0), SIZE : $\log(\text{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 ISSUE : 유상증자 여부, 교체 이후 3년 내에 자본금이 10% 이상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d_SIZE : $\log(\text{교체 연도 총자산}) - \log(\text{교체 직전연도 총자산})$, d_INVREC : 교체 연도의 INVREC((재고자산 + 매출채권)/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INVREC, d_LEV : 교체 연도 LEV(총부채/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LEV, d_ROA : 교체 연도 ROA(당기순이익/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ROA, AFR : 총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NAS : 감사서비스와 동시에 비감사서비스를 받는 경우 1, 아니면 0, ZSCORE : 파산예측모형을 통해 도출된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재무상황지표

2) 표시된 통계량은 피어슨 상관계수임.

3)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4) 분석에서 사용된 메트릭 척도인 변수들은 극단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위, 하위 1% 값을 극단치로 간주하고 이를 조정(Winsorize)

2. 감사인 교체방향과 재무건전성-가설 1에 대한 검증

<표 5>는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과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 간에 감사인 교체 전 3년부터 교체 후 1년까지 ZSCORE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연도에서 평균값, 중위수 모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 저품질 감사인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표 5>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과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 간
감사인 교체 전후 ZSCORE 비교

시 점	평 균			중위수		
	고품질 감사인	저품질 감사인	t-값	고품질 감사인	저품질 감사인	z-값
t-3	-2.1304	-1.8206	-3.74***	-2.3034	-2.0977	-3.98***
t-2	-2.1231	-1.7653	-4.07***	-2.2866	-2.1637	-3.58***
t-1	-2.0826	-1.6593	-4.35***	-2.2599	-2.0976	-3.52***
t=0	-2.1142	-1.7148	-4.23***	-2.2566	-2.1158	-3.50***
t+1	-1.9954	-1.4647	-4.42***	-2.2147	-2.0580	-3.52***

주 1) ZSCORE : 파산예측모형을 통해 도출된 재무상황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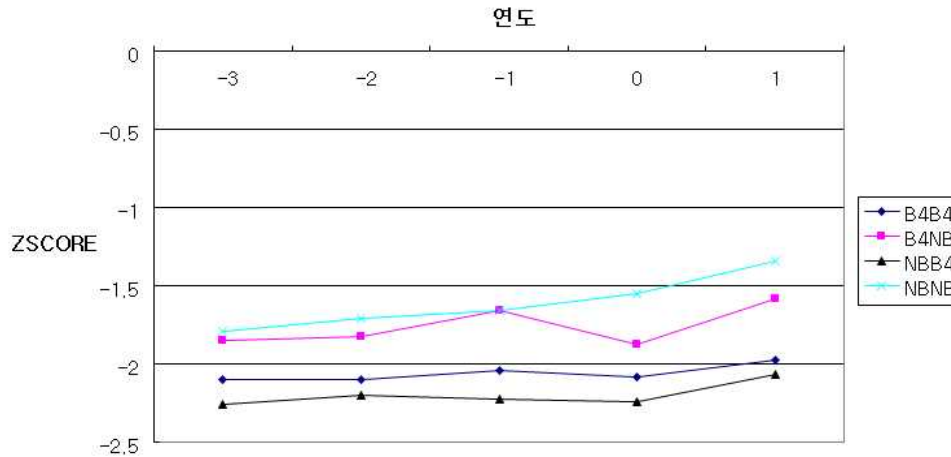
2) t=0 시점이 감사인 교체연도임.

3) 평균값에 대한 t-값은 양측 t-검증 결과이며, 중앙값에 대한 z-값은 양측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

4) *** 1% 유의수준

<그림 1>은 표본을 감사인 교체방향에 따라 네 집단으로 구분한 후 교체 전 3년부터 교체 후 2년까지의 각 집단별 재무상황지표(ZSCORE)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네 집단 중 상향교체 표본(NBB4)의 재무상황이 가장 좋으며, 저품질 감사인에서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표본(NBNB)의 재무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교체 표본(B4NB)의 경우 교체 직 전연도까지 재무상황이 나빠지다 교체 후에는 오히려 재무상황이 개선됨을 보인다. 특히 하향교체 표본(B4NB)은 네 집단 중 재무상황의 변동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감사인 교체방향별 재무상황지표 추이



<표 6>은 피감사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선호하는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로짓분석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Log Likelihood 값에 대한 통계량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감사인 교체방향과 재무건전성(ZSCORE) 간의 관계(N=356)

$$AQUALITY = a_0 + b_1 * ZSCORE + b_2 * SIZE + b_3 * ISSUE + b_4 * GROWTH + b_5 * MKT + \sum b_i * YEAR_i + u$$

	계 수	Wald χ^2	p-value
Intercept	-7.2400	23.59***	<0.0001
ZSCORE	-0.3834	5.72**	0.0168
SIZE	0.5906	18.87***	<0.0001
ISSUE	0.0384	0.02	0.8869
GROWTH	-0.3524	0.81	0.3681
MKT	-0.0978	0.10	0.7479
YEAR(연도더미)		포함	
VIF최대값		1.8478	
Likelihood ratio		60.1716***	

주 1) AQUALITY : 고품질 감사인으로서의 교체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Big 4로 교체되면 1, 아니면 0), ZSCORE : 파산예측모형을 통해 도출된 감사인 교체 직전 연도의 재무상황지표, SIZE : $\log(\text{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 ISSUE : 유상증자 여부, 교체 이후 3년 내에 자본금이 10% 이상 증가했으면 1, 아니면 0, GROWTH : 총자산증가율($(\text{교체 직전 연도 총자산} - \text{교체 전전 연도 총자산}) / \text{교체 전전 연도 총자산}$), YEAR : 연도더미, MKT : 시장구분 더미변수(유가증권시장이면 1, 아니면 0)

2)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Allison (1999)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⁵⁾. SIZE의 경우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여 규모가 클수록 고품질 감사인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ISSUE, GROWTH는 예측과는 달리 유의적인 계수 값을 보이지 않는다. 실험변수인 ZSCORE는 유의적인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데($p\text{-value}=0.0168$), 이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일수록 고품질 감사인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 비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종성·최기호(2001)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3. 초도감사 보수할인과 감사인 교체방향, 감사수입 비중, 비감사비서스의 동시 제공-가설 2, 3, 4에 대한 검증

<표 7>은 감사품질에 따라 초도감사 보수할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집단별 평균 값 및 중위수의 차이분석 결과이다.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표본의 24.3% 정도가 보수할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41.3%가 보수할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표본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고품질 감사인 교체 기업과 저품질 감사인 교체 기업의 초도감사 보수할인 차이 분석

구 분	평 균			중위수		
	고품질 감사인	저품질 감사인	t-값	고품질 감사인	저품질 감사인	z-값
DISCOUNT	0.2427	0.4133	-3.47***	0	1.0000	-3.42***

주 1) DISCOUNT : 감사보수가 할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2) 평균값에 대한 t-값은 양측 t-검증 결과이며, 중앙값에 대한 z-값은 양측 Wilcoxon 부호순위 검증 결과

3) *** 1% 유의수준

<표 8>은 감사인 교체방향과 초도감사 보수할인(가설2), 감사수입 비중과 초도감사 보수할인(가설3),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과 초도감사 보수할인(가설4)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다변량 로짓분석결과이다. 해당 가설의 실험변수를 개별적으로 설정한 모델1~모델3과 모든 실험변

5)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OLS 회귀분석을 하는 형식으로 VIF 값을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이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이므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Allison 1999). VIF값의 최대값은 1.6845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10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염려할 수준이 아니라 판단된다.

수를 포함시킨 모델4로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델1의 경우 AQUALITY는 음의 회귀계수값을 가지며($p\text{-value}=0.0006$), 이는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 감사보수를 할인받는 경우가 더 빈번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 비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에서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가설2는 지지되었다. 그리고 모델2에서는 총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AFR)의 경우 유의적인 양의 계수값을 가진다($p\text{-value}=0.0566$).

〈표 8〉 초도감사 보수할인과 감사인 교체방향, 감사수입 비중, 비감사비서스의
동시 제공 간의 관계(N=356)

$$DISCOUNT = a_0 + b_1*AQUALITY + b_2*d_SIZE + b_3*d_INVREC + b_4*d_LEV + b_5*d_ROA + b_6*MKT + \sum b_i*YEAR_i + u \quad \text{Model(1)}$$

$$DISCOUNT = a_0 + b_1*AFR + b_2*d_SIZE + b_3*d_INVREC + b_4*d_LEV + b_5*d_ROA + b_6*MKT + \sum b_i*YEAR_i + u \quad \text{Model(2)}$$

$$DISCOUNT = a_0 + b_1*NAS + b_2*d_SIZE + b_3*d_INVREC + b_4*d_LEV + b_5*d_ROA + b_6*MKT + \sum b_i*YEAR_i + u \quad \text{Model(3)}$$

$$DISCOUNT = a_0 + b_1*AQUALITY + b_2*AFR + b_3*NAS + b_4*d_SIZE + b_5*d_INVREC + b_6*d_LEV + b_7*d_ROA + b_8*MKT + \sum b_i*YEAR_i + u \quad \text{Model(4)}$$

Variable	Model(1)		Model(2)		Model(3)		Model(4)	
	계수	Wald χ^2	계수	Wald χ^2	계수	Wald χ^2	계수	Wald χ^2
Intercept	-0.3034	0.83	-1.5691	7.54***	-0.6037	3.58*	-1.2126	4.48**
AQUALITY	-0.8328	11.69***					-0.8554	11.83***
AFR			1.9217	3.64*			2.0168	4.15**
NAS					-0.2993	0.99	-0.0896	0.08
d_SIZE	0.4933	0.85	0.6102	1.28	0.6886	1.59	0.5500	0.99
d_INVREC	2.7767	3.21*	2.4062	2.40	2.3079	2.20	2.9272	3.54*
d_LEV	0.3276	0.08	0.3828	0.11	0.1043	0.01	0.6522	0.32
d_ROA	-0.1528	0.04	0.0979	0.02	0.0561	0.01	-0.0851	0.01
MKT	0.1187	0.21	-0.0630	0.06	-0.0068	0.00	0.0896	0.12
YEAR(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VIF최대값	1.6888		1.6799		0.9792		1.7215	
Likelihood ratio	18.4025**		10.2334		7.5454		22.9090**	

- 주1) DISCOUNT : 감사보수가 할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AQUALITY : 고품질 감사인으로의 교체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Big 4로 교체되면 1, 아니면 0), AFR : 감사인의 전체 수입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NAS : 감사서비스와 함께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1, 아니면 0, d_SIZE : $\log(\text{교체 연도 총자산}) - \log(\text{교체 직전연도 총자산})$, d_INVREC : 교체 연도의 INVREC($(\text{재고자산} + \text{매출채권}) / \text{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INVREC, d_LEV : 교체 연도 LEV($\text{총부채} / \text{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LEV, d_ROA : 교체 연도 ROA($\text{당기순이익} / \text{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ROA, MKT : 시장구분 더미(유가증권 시장이면 1, 아니면 0), Year : 연도 더미
- 2)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이는 감사인의 감사수입 비중이 클수록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감사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3은 지지되었다. 모델3의 경우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 여부를 나타내는 NAS이 유의적인 회귀계수값을 가지지 않았다⁶⁾. 즉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더 많은 감사보수할인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4는 기각되었다. 모델1~모델3의 결과는 모델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설의 실험변수를 개별적으로 설정한 분석과 모든 실험변수를 포함시킨 분석의 결과가 서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가설2에 대한 추가분석

감사보수의 할인이 감사위험과 관련된 피감사기업의 다른 특성요인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식(2)의 연구모형에서 피감사기업의 특성요인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감사인 교체 방향에 따른 초도감사 보수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보수할인이 초도감사 시점에 보다 많이 나타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요인에 의해서 감사보수 할인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면 감사인 교체 시점의 감사보수할인이 초도감사 이전, 이후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히 나타날 것이다. 반면 피감사기업의 특성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면 초도감사 이전, 이후의 보수할인이 감사인 교체 시점과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표 9>는 분석에서 사용된 356개의 감사인 교체 기업을 대상으로 교체 이전, 이후 3년 동안의 수입료 인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감사인 교체 시점에는 수입료 인하가 31.46%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기간에 있어서는 10% 내외의 수입료 인하가 이루어졌다. 분산분석 결과 5개 기간별 수입료 인하 비율이 모두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고($p\text{-value} = <0.0001$), 사후분석⁷⁾ 결과 교체기간($t-1-t=0$)이 나머지 4개의 기간과는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1%유의수

6) 반드시 교체 직후가 아니라도 교체 이후 수년 내에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감사보수의 할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감사서비스를 감사인 교체 이후 3년 내에 제공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증결과는 <표 7>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준). 즉 교체 기간이 다른 기간보다 수입료 인하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의 다른 특성 요인 보다는 초도감사라는 특수한 상황이 감사보수 할인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9〉 감사인 교체 전후의 감사보수 할인 추이

기 간	수임료 인상 또는 불변	수임료 인하	합 계
t-3 → t-2	318(89.33%)	38(10.67%)	356(100%)
t-2 → t-1	311(87.36%)	45(12.64%)	356(100%)
t-1 → t=0	244(68.54%)	112(31.46%)	356(100%)
t=0 → t+1	324(91.01%)	32(8.99%)	356(100%)
t+1 → t+2	325(91.29%)	31(8.71%)	356(100%)
F-값	28.15***		

주1) t=0 시점이 감사인 교체연도임.

2) F-값은 5개의 집단 사이에 수입료 인하 비율의 평균이 모두 동일한지를 살펴보는 ANOVA 검증 결과

3) *** 1% 유의수준

감사인 교체 방향과 초도감사 보수할인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감사인 교체 방향을 상향교체, 하향교체, 수평교체 등으로 세분화한 후 각 집단별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차이를 보이는 지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동일한 품질을 가진 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보다 상향교체, 하향교체 등 품질 차이를 가진 감사인으로 교체한 경우에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보다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분석을 위해 감사인 교체를 고품질 감사인에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수평교체(B4B4), 고품질 감사인에서 저품질 감사인으로 하향교체(B4NB), 저품질 감사인에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상향교체(NBB4), 저품질 감사인에서 저품질 감사인으로 수평교체(NBNB) 등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10>는 재무건전성지표(ZSCORE), 초도감사 보수할인 비율 등이 감사인 교체방향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분산분석 결과이다. 교체 1년전 ZSCORE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으며(p-value<0.0001), 사후분석⁷⁾을 수행한 결과 B4NB와 NBNB가 같은 집단으로, B4B4와 NBB4가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었다(1%유의수준). 이는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설1의 검증 결과와 동일하다. 수입료 인하비율의 경우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p-value=0.0002), 사후분석을 수행한 결과

7) 5개의 집단 중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8) 4개의 집단 중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후분석으로 Duncan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B4NB가 나머지 3개의 집단과 다르게 분류되었다(1%유의수준). 이는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여 하향교체 표본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 현상이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들이 하향교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감사보수 할인을 받고 있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표 10〉 감사인 교체방향별 재무건전성지표(ZSCORE), 감사보수할인 비율의 비교(N=356)

교체 방향	교체 1년전 ZSCORE	교체 1년전 △ZSCORE	수임료 인하비율
상향교체(저품질 감사인 → 고품질 감사인)	-2.2236	-0.0234	23.3%
하향교체(고품질 감사인 → 저품질 감사인)	-1.6613	0.1597	52.0%
수평교체(고품질 감사인 → 고품질 감사인)	-2.0453	0.0574	24.5%
수평교체(저품질 감사인 → 저품질 감사인)	-1.6572	0.0525	30.7%
F-값	7.81***	0.68	6.86***

주1) F-값은 4개의 집단 사이에 평균이 모두 동일한지를 살펴보는 ANOVA 검증 결과

2) *** 1% 유의수준

<표 10>의 단변량 분석을 통해 밝혀진 초도감사 보수할인과 하향교체와의 관계를 보다 엄밀히 실증하기 위해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명확한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해서 재무상황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분석과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 집단에서는 하향교체를 통해 감사수수료의 절감을 받으려는 유인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무상황이 좋은 기업은 감사수수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상향교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식(3)과 같다. 식(2)에 상향교체와 하향교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고, 이들 더미변수는 수평교체와 비교된 상대적인 감사보수 할인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하향교체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B4NB의 예측부호는 양(+)이다.

$$DISCOUNT = a_0 + b_1*B4NB + b_2*NBB4 + b_3*d_SIZE + b_4*d_INVREC + b_5*d_LEV + b_6*d_ROA + b_7*MKT + \sum b_i*YEAR_i + u \quad (3)$$

여기서 B4NB : 고품질 감사인에서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하향교체)한 경우 1, 아니면 0

NBB4 : 저품질 감사인에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상향교체) 경우 1, 아니면 0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식(2)에서와 동일

〈표 11〉 감사인 교체방향과 초도감사 보수할인 간의 관계(N=356)

$$DISCOUNT = a_0 + b_1*B4NB + b_2*NBB4 + b_3*d_SIZE + b_4*d_INVREC + b_5*d_LEV + b_6*d_ROA + b_7*MKT + \sum b_i*YEAR_i + u$$

변 수	전체 표본 (N=356)		재무건전기업 (N=178)		재무불건전기업 (N=178)	
	계수	Wald χ^2	계수	Wald χ^2	계수	Wald χ^2
Intercept	-0.9621	7.37***	-1.2617	5.32**	-0.7846	2.53
B4NB	1.2001	16.66***	1.3873	9.12***	1.0729	7.06***
NBB4	-0.2479	0.38	-0.3413	0.41	0.2718	0.16
d_SIZE	0.5973	1.20	1.3857	1.58	0.2446	0.12
d_INVREC	2.0598	1.63	2.3963	0.72	1.6741	0.68
d_LEV	0.4463	0.15	-1.1120	0.20	0.6039	0.19
d_ROA	-0.3721	0.22	0.3848	0.01	0.0113	0.00
MKT	0.2045	0.59	-0.0242	0.00	0.4506	1.42
YEAR(연도더미)	포함		포함		포함	
VIF최대값	1.7450		1.7140		1.8611	
Likelihood ratio	25.6254***		18.4704**		12.8344	

주1) DISCOUNT : 감사보수가 할인되었으면 1, 아니면 0, B4NB : 고품질 감사인에서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하향교체)한 경우 1, 아니면 0, NBB4 : 저품질 감사인에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상향교체) 경우 1, 아니면 0, d_SIZE : $\log(\text{교체 연도 총자산}) - \log(\text{교체 직전연도 총자산})$, d_INVREC : 교체 연도의 INVREC((재고자산 + 매출채권)/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INVREC, d_LEV : 교체 연도 LEV(총부채/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LEV, d_ROA : 교체 연도 ROA(당기순이익/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ROA, MKT : 시장구분 더미(유가증권시장이면 1, 아니면 0), Year : 연도 더미

2)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표 11>은 재무건전성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여 감사인 교체방향(상향교체, 하향교체, 수평교체)과 초도감사 보수할인 간의 관계가 서로 상이한지를 알아보는 다변량 분석결과이다⁹⁾. 이때 재무상황지표(ZSCORE)를 중심으로 중위수보다 큰 집단을 재무불건전기업으로, 중위수보다 작은 집단을 재무건전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재무건전기업, 재무불건전기업으로 표본을 나눈 경우와 전체 표본의 경우 모두에서 하향교체(B4NB)는 유의적인 양의 계수 값을 가진다. 이는 하향

9) 전체 356개 표본 중에서 건전기업으로 분류된 표본은 178개이며, 불건전기업으로 분류된 표본도 178개이다. 건전기업 중에서 상향교체한 경우는 32개이며 하향교체한 경우는 33개이다. 불건전기업 중에서 상향교체한 경우는 11개이며, 하향교체한 경우는 42개이다. 분할표를 작성하여 카이스퀘어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무건전성과 교체유형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p\text{-value}=0.0015$). 즉 재무건전기업의 경우 상향교체가 더 많고, 재무불건전기업의 경우 하향교체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교체의 경우 수평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초도감사 보수할인을 받으며,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향교체 기업이 감사보수를 할인받게 된다면 이후 어떠한 감사서비스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감사투입시간의 감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식(3)에서 감사시간의 감소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사시간 공시 초기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정태범·박희우 2006)를 참고하여, 2005년과 2006년 감사시간 공시 자료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분석에서 사용된 표본은 288개로 축소되었다.

〈표 12〉 감사인 교체방향과 감사시간 축소 간의 관계(N=288)

$$AH_DECREASE = a_0 + b_1*B4NB + b_2*NBB4 + b_3*d_SIZE + b_4*d_INVREC + b_5*d_LEV + b_6*d_ROA + b_7*MKT + \sum b_i*YEAR_i + u$$

변 수	계 수	Wald χ^2	p-value
Intercept	-0.4089	1.28	0.2583
B4NB	0.9766	9.06***	0.0026
NBB4	-0.6709	2.31	0.1285
d_SIZE	0.6780	1.25	0.2643
d_INVREC	4.1508	5.28**	0.0216
d_LEV	-0.5416	0.16	0.6898
d_ROA	-0.8959	0.78	0.3764
MKT	-0.5307	3.31*	0.0688
YEAR(연도더미)		포함	
VIF최대값		1.4633	
Likelihood ratio		28.1651***	

주1) AH_DECREASE : 감사시간이 축소되었으면 1, 아니면 0, B4NB : 고품질 감사인에서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하향교체)한 경우 1, 아니면 0, NBB4 : 저품질 감사인에서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상향교체) 경우 1, 아니면 0, d_SIZE : $\log(\text{교체 연도 총자산}) - \log(\text{교체 직전연도 총자산})$, d_INVREC : 교체 연도의 INVREC((재고자산 + 매출채권)/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INVREC, d_LEV : 교체 연도 LEV(총부채/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LEV, d_ROA : 교체 연도 ROA(당기순이익/총자산) - 교체 직전연도 ROA, MKT : 시장구분 더미(유가증권시장이면 1, 아니면 0), Year : 연도 더미

2) * 10%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 유의수준

<표 12>에서 보듯이 B4NB의 계수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이는데($p\text{-value}=0.0026$), 이는 수평교체와 비교하여 하향교체의 경우 감사시간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하향교체)를 하면서 감사보수를 할인받고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을 감소시킴에 따라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 시점의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피감사기업 및 감사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과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더 낮은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과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 간의 감사보수를 비교하여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어떤 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감사인 교체와 관련되어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감사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전체 수입 중에서 감사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더 많은 감사보수 할인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실증결과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고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한 기업보다 더 낮으며, 저품질 감사인으로 교체하면서 더 많은 감사보수 할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 교체를 상향교체, 하향교체, 수평교체 등으로 구분한 추가분석을 통해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하향교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향교체기업의 경우 감사시간이 교체 이전보다 유의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양질의 감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재무불건전 기업들이 감사보수의 할인을 받으면서 저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더 적은 감사시간이 이들 기업에게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저품질의 감사인을 선임하는 역선택이 국내 회계감사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재무불건전 기업의 회계 신뢰성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게 해준다. 또한 감사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감사인이 고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초도감사 보수할인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객 확보 차원의 경쟁적 가격 인하가 업계 전반의 감사투입시간 감소로 연결되고, 결과적으로 감사시장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면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의 동시 제공이 감사보수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인 교체와 관련되어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이루어지는 감사인 및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재무건전성이 낮은 피감사기업에서, 감사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감사인에게서 더 많이 이루어짐을 확인함으

로써 초도감사 보수할인을 통해 국내 감사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나는 역선택¹⁰⁾과 과도한 가격경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감사인 교체와 관련된 규제기관의 정책 방향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역선택의 문제는 감사품질에 대해서 피감사회사들이 차별점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보수를 전반적으로 하향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품질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곤경기업들이 오히려 저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고 저품질의 감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재무우수기업들은 고품질의 감사인을 선택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는 피감사회사의 투자자, 정보이용자들이 고품질 감사인과 저품질 감사인에 대하여 차별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 고종권 · 박종원. 2005. “세금이 부채 만기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0권 제2호 : 151 - 175.
- 김경태. 2006. “감사품질이 이익의 질과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1권 제3호 : 243 - 284.
- 노준화 · 배길수 · 조성하. 2004.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207 - 230.
- 박재환 · 박희우 · 정태범. 2008.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37 - 160.
- 박종성. 1999. “피감사회사 특성과 감사인 특성을 이용한 감리지적 예측”. 회계학연구 제24권 제1호 : 1 - 32.
- 박종성 · 최기호. 2001. “차별적 감사수요와 자발적 감사인 교체”.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 1 - 25.
- 신용인 · 최 관 ·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2권 제1호 : 173 - 207.
- 심한택. 2001. “감사인의 명성과 감사의견이 이익의 정보효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15권 : 147 - 163.
- 이계원. 1993. “회계정보에 의한 기업부실예측과 시장반응”. 회계학연구 제16호 : 49 - 77.
- 이효익. 1990.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 - 자유수입제도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11호 : 1 - 36.
- 장휘용. 1997. “부실기업표본을 이용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회계조정행위 분석”.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 61 - 90.
- 정문중. 1997. “대리인 비용, 사적정보의 문제 및 기타 기업특성과 기업의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 91 - 121.
- 정태범 · 박희우. 2006. “감사시간 공시의 적정성 연구”. 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 57 - 83.
- 최 관 · 백원선. 1998. “감리지적기업의 이익조작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 133 - 161.
- Allison, P. 1999.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 Theory and Application*. Cary, NC : SAS Institute Inc.
- Altman, E. 1968. Financial Ratios,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Journal of Finance* 23(September) : 589 - 609.
- Becker, C., M. DeFond, J. J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Spring) : 1 - 24.
- Bell, T., and R. Tabor. 1991. Empirical Analysis of Audit Uncertainty Qualif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Autumn) : 350 - 370.

- Chow, C., and S. Rice. 1982. Qualified Audit Opinions and Auditor Switching. *The Accounting Review* 57(April) : 326 – 335.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December) : 183 – 199.
- DeFond, M. 1992. The Association Between Changes in Client Firm Agency Costs and Auditor Switching.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1(Spring) : 16 – 31.
-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February) : 35 – 67.
- Dopuch, N., R. Holthausen, and R. Leftwich. 1987. Predicting Audit Qualifications with Financial and Market Variables. *The Accounting Review* 62(July) : 642 – 650.
-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s :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6(August) : 133 – 151.
- Francis, J., and D. Simon. 1987. A Test of Audit Pricing in the Small – client Segment of the U. S. Auditor Market. *The Accounting Review* 62(January) : 145 – 157.
- Francis, J., and E. Willson. 1998. Auditor Change : A Joint Test of Theories Relating to Agency Costs and Auditor Differentiation. *The Accounting Review* 63(October) : 663 – 682.
- Francis, J., and J.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Spring) : 135 – 165.
- Gregory, A., and P. Collier. 1996. Audit Fees and Auditor Change : An Investigation of the Persistence of Fee Reduction by Type of Change.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23(January) : 13 – 28.
- Johnstone, K., and J. Bednard. 2003. Risk Management in Client Acceptance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8(October) : 1003 – 1025.
- Kreutzfeldt, R., and W. Wallace. 1986. Error Characteristics in Audit Populations : Their Profile and Relationships to Environmental Factor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6(Fall) : 20 – 43.
- Krishnan, J. 1994. Auditor Switching and Conservatism. *The Accounting Review* 69(January) : 200 – 215.
- Krishnan, J., and J. Krishnan. 1997. Litigation Risk and Auditor Resignations. *The Accounting Review* 72(October) : 539 – 560.
- Ohlson, J. 1980. Financial Ratios and the Probabilistic Prediction of Bankruptc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8(Spring) : 109 – 131.
-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Spring) : 97 – 110.
- Palmrose, Z. 1989. The Relation of Audit Contract Type to Audit Fees and Hours. *The Accounting*

- Review* 64(July) : 488 – 499.
- Sankaraguruswamy, S., and S. Whisenant. 2003. Pricing Initial Audit Engagements : Empirical Evidence following Public Disclosure of Audit Fees. *Working Pape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Schwartz, K., and K. Menon. 1985. Auditor Switches by Failing Firms. *The Accounting Review* 60(April) : 248 – 261.
- Shu, S. 2000. Auditor Resignation : Clientele Effects and Legal Li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April) : 173 – 205.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Summer) : 161 – 190.
- Smith, D. 1986. Auditor 'Subject to' Opinions, Disclaimers and Auditor Chang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Fall) : 95 – 108.
- Teoh, S., and T. Wong. 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68(April) : 346 – 367.
- Titman, S., and B. Trueman. 1986. Information Quality and the Valuation of New Issu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8(June) : 159 – 172.
- Walker, P., and J. Casterella. 2000. The Role of Auditee Profitability in Pricing New Audit Engagement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9(Spring) : 157 – 167.
- Zmijewski, M. 1984. Methodological Issu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Financial Distress Prediction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Supplement) : 59 – 82.

A Study on Auditor Change and Initial Audit Fee Discount

Jongsung Park* · Sunghwan Kim** · Eunhye Jo***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firms in financial distress try to switch to a lower quality auditor and initial—year audit fee discounts happen more frequently in the sample of switching to a lower quality auditor compared to switching to a higher quality auditor. This paper also examine the effect of the fee dependence to a specific client and non—audit service provision on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firms who have bad financial conditions generally are more likely to switch to a lower quality auditor rather than to a higher quality one. We also find that initial engagement discounting is more likely in the case of switching to a lower—quality auditor than in the case of switching to a higher—quality one. It was found that more than fifty percent of downgrade sample (switching from a higher—quality auditor to a lower—quality auditor) discount their audit fees. In addition, the greater the fee dependence to a specific client is, the more initial audit fee discount happen. However, there is no relation between non—audit fee provision and initial audit fee discount.

<Key words> auditor change, initial audit, audit fee discount, audit quality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Ph.D Student,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 M.S. Stud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